

A study of 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and national identities vi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Heungsun Park^{a,1} · Min Han^b · Un-Chul Yang^c · EunJi Lee^a

^aDepartment of Statistic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Department of Psychology, Woosong University; ^cThe Sejong Institute

(Received March 4, 2019; Revised March 28, 2019; Accepted April 5, 2019)

Abstract

There is ample research on 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in various directions that includes geopolitical aspects. There still exist escalated tensions in politics and diplomacy despite the remarkable growth in the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se countries. This study presents a way of representing national identity based on survey results vi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investigates if these national identities can be related to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attachment to the nation does not affect the conflicts between the countries and that a more friendly awareness of other countries tends to give a positive effect to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Keywords: multivariate data analysis, analysis of covariance, logistic regression

1. 연구배경과 목적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오랫동안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갈등과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 들어서도 중국의 패권주의화,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일본의 과거사 행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사과 요구 등, 3국의 갈등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3국의 경제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3국 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역부문에서는 기존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수출입보다는 3국 간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면서 한·중·일 3국의 자체 분업체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갈등과 협력의 공존현상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한·중·일 3국의 갈등 및 협력은 국가 차원에서는 다양한 부문의 이득과 손실로 상쇄(offset)되기도 하지만, 3국 국민 개개인의 자국과 타국에 대한 인식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 연구는 3국의 협력과 갈등의 원인규명을 위한 분석의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7S1A5A2A03069083).

¹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Statistic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81 Oedae-ro, Yongin-si, Gyeonggi-do 17035, South Korea. E-mail: hspark@hufs.ac.kr

틀로서 심리학에서 사용되던 개인의 ‘정체성(identity)’ 개념을 활용하여 개인으로부터 국가의 정체성까지 분석의 폭을 넓혀 가고자 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self-image)를 의미하지만, 개인은 물리적, 사회적 영역에서 별개의 자기를 경험하면서 자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물리적 영역에서는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생태적 자아(ecological self)’를 구축하고, 사회적 영역에서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각되는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관계적 자아(interpersonal self)’를 만들어 간다 (Meltzoff와 Moore, 1985). 특히 사회심리학에서는 개인이 통합된 단일한 자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아의 측면들을 가진다고 지적해 왔으며 (Rosenberg, 1997), 자아를 개인적 자아, 관계적 자아, 집합적 자아로 구분하고 개인에게 어떤 역할과 특성이 요구되느냐에 따라 다른 차원의 자아를 구성하고 활성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Sedikides와 Brewer, 2001). 그리고 개인들이 자기의 범주에 충실할 때 정체성 효용에서 나오는 기대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Akerlof와 Kranton, 2008), 타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이미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개인의 기부행위는 ‘물질적 손실’과 ‘자신의 이미지 제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충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Bénabou와 Tirole, 2006).

이러한 개인의 정체성은 국가로도 확장되는데,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는 상대에 대한 반감(또는 적개심)이 상대적으로 쉽게 용인되며, 시장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강한 이기심에 따른 경제활동이 효율적으로 나타난다 (Dufwenberg와 Güth, 2007). 이와 같이, 국가나 사회의 정체성은 구성원들이 그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지각과 그 집단이 지니고 있는 가치 및 집단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연합되어 결정되고 있다 (Tajfel, 1978). 또한,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은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부유계층보다는 빈곤계층이 훨씬 국가 정체성에 민감하고,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계층 간 갈등이 낮으며, 국가 정체성과 부의 재분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Shayo, 2009).

국가의 정체성이 구성원의 의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Bowles, 1998), 만일 한·중·일 국가 정체성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한 한·중·일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협력을 촉진함에 있어서, 국가가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을 유도하거나 교육함으로써 적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Hermann 등, 2009).

본 연구는 개인의 집단형태로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한·중·일 3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Hermann 등 (2009)은 이탈리아와 미국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의 국가 정체성이 이란의 핵확산이나 수단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유엔의 정책과 어떤 협력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국가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군사적 선택’보다는 ‘국제적인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이 사용한 국가 정체성을 대표하는 항목은 ‘국가에 대한 애착(attachment to the nation)’,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인식(cultural conception of the nation)’, ‘쇼비니즘(national chauvinism)’이라는 세 가지 항목이었다. 이 문항은 이미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국가 정체성으로 사용되었으며 (Sniderman 등, 2004; Huddy와 Khatib, 2007), 조사 설문지는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까지 4점의 리커드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1.1과 같다. Hermann 등 (2009)은 국가 정체성을 Table 1.1의 3개의 항목(혹은 잠재변수)로 정의하고, 각 잠재변수가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Hermann 등 (2009)의 ‘Attachment to the Nation’을 더 세분하여 ‘집단 존중감’과 ‘집단 동일시’라는 두 개의 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그 이유는 집단 존중감(혹은 집단 자아 존중감, collective self-esteem)은 ‘한 개인이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최근 집단 정체성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Crocker와 Luhtanen, 1990; Kim과 Omizo, 2005; 박진이, 2017). 또한 Hermann 등 (2009)의 ‘Cultural Conception of the Nation’이라

Table 1.1. The national identity categories in Hermann *et al.* (2009) used in this article

Hermann 등 (2009)의 항목 [V1]	본 연구의 세부 항목	질문 (예)
Attachment to the Nation	(집단 존중감)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국인)임을 알립니까?
	(집단 동일시)	누가 당신 국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당신 자신에게 나쁘게 말하는 것같이 느낍니까?
Cultural Conception of the Nation	(본원적 정체성)	누가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National Chauvinism	(쇼비니즘)	당신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는 항목은 국제정치학에서 사용되는 ‘본원적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였고 (김태환, 2018), Table 1.1에 언급된 4가지 항목 외에 다음 항목들을 추가하여 국가 정체성에 고려해 보았다.

- (집단 범주화 정체성) [V2]: 집단 범주화는 개인이 자기가 속한 내집단(ingroup)의 규범에 동조하는 경향이며 (Turner와 Oakes, 1989), 집단 범주화를 통해 개인은 사회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효율적 행동을 한다 (Macrae와 Bodenhausen, 2001).
- (구성적 정체성) [V3]: 어떤 국가의 구성적 정체성(constructivism)은 다른 나라들과 국제적 상호작용이나 국제적 관계에서 자국의 역할을 통해 구성된다 (Wendt, 1999).
- (타자인식의 정체성) [V4]: 국가나 사회의 정체성이 타자에 대한 비판적 담론(critical discourse)에서 형성된다는 비판정치학의 개념으로서 국가가 지역적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의해 형성되는 정체성을 지칭한다 (Chi,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3국의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4개의 기존 항목과 3개의 추가 항목을 종합하여 비교하고 (Table 2.1),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종합지수를 제시한 후,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가 3국 협력이나 갈등 현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한·중·일 3국 간 협력과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상호 인식을 조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설문조사일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우리는 2018년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중·일 3국 1,115명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온라인 조사는 (주)엠브레인을 통해 국가별 300명씩의 패널을 성별-나이별 비슷한 비율로 실시하였으며 나머지는 각 나라에서 오프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각각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일하게 번역하되, 주요 항목당 3-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Table 2.1)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4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48.3% 여성이 51.7%였고, 전체 나이 분포는 Table 2.2와 같은데, 패널 응답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패널조사의 경우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에 비해 응답초대의 수락에서 설문 마칠 때까지의 완성비율(completion rate)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Federal Reserve Board, 2013).

2.2.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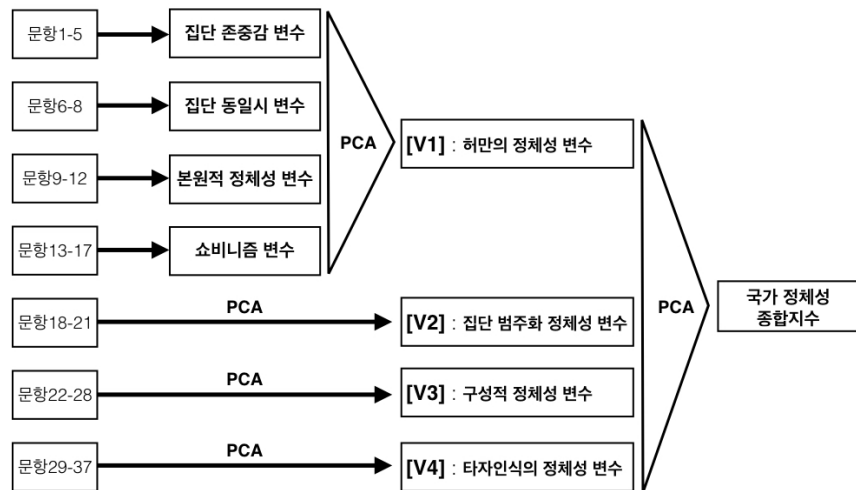
Figure 2.1은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를 구하기 위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Table 2.1. The suggested national identity categories

국가 정체성 변수	항목	문항 수	질문 (예)
[V1]	(집단 존중감)	5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국인)임을 알린다.
	(집단 동일시)	3	누가 (한국)을 비판하면, 나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처럼 느껴진다.
	(본원적 정체성)	4	진정한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쇼비니즘)	5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V2]	(집단 범주화 정체성)	4	나는 (한국인)을 외국 사람보다 쉽게 믿는다.
[V3]	(구성적 정체성)	7	(한국)은 동아시아의 리더 역할을 한다.
[V4]	(타자인식의 정체성)	9	(일본/중국)은 믿을 수 있는 친구다.

Table 2.2. the age distribution of the survey respondents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분포	195명 (19.27%)	171명 (16.90%)	178명 (17.59%)	172명 (17.00%)	296명 (29.25%)

**Figure 2.1.** The flowchart of national identity composite index vi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과정을 도식한 것이다. 문항1-17은 Hermann 등 (2009)에서 사용된 ‘집단 존중감’, ‘집단 동일시’, ‘본원적 정체성’, ‘쇼비니즘’의 항목들과 연관된 질문이며, 우리는 이 17개 문항의 제1주성분을 구해 ‘허만의 국가 정체성 변수’ [V1]을 생성시켰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한 ‘집단 범주화 정체성’, ‘구성적 정체성’, ‘타자인식의 정체성’은 각 항목에 대한 4-9개 문항의 제1주성분을 구해서 이를 국가 정체성 변수 [V2], [V3], [V4]로 생성하였고, 이렇게 생성된 정체성 변수 [V1]-[V4]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주성분분석을 통해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기존의 Hermann 등 (2009)에 의한 정체성 변수 외에 우리는 집단 범주화 정체성, 구성적 정체성, 타자인식의 정체성에 대한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포괄적인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를 제시했고, 이와 같은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가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 현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공분산분석(ANCOVA)과 로지스틱 회귀 등을 이용해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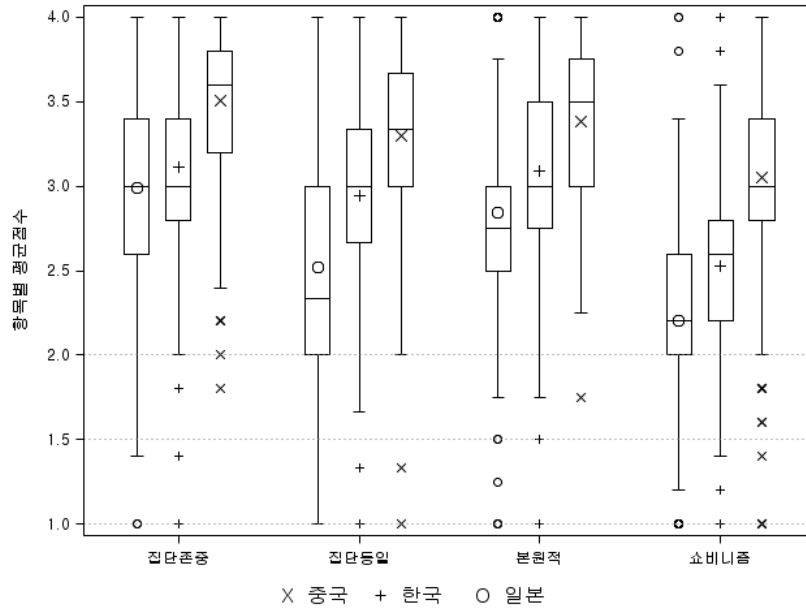


Figure 3.1. Comparison of the national identities used in Hermann *et al.* (2009).

Table 3.1. Multiple comparison test using Tukey statistic for 4 subcategories

[V1] Hermann 등 (2009)의 세부항목	Tukey 다중비교 결과 (유의수준 0.05)
집단 존중감	중국(3.50) > 한국(3.11) > 일본(2.98)
집단 동일시	중국(3.29) > 한국(2.94) > 일본(2.51)
본원적 정체성	중국(3.38) > 한국(3.08) > 일본(2.84)
소비니즘	중국(3.05) > 한국(2.52) > 일본(2.20)

3. 연구결과

3.1. 국가 정체성 항목 비교

Hermann 등 (2009)에서 소개한 집단 존중감, 집단 동일시, 본원적 정체성, 소비니즘이라는 국가 정체성 항목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설문응답을 상자그림으로 표현하면 Figure 3.1과 같다.

Table 3.1은 이에 대한 튜키 통계량(Tukey statistic)의 다중비교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중국 > 한국 > 일본 순의 국가 정체성 점수 차이를 보여준다(유의수준 0.05). 소비니즘에서 일본은 우리의 보편적 기대와 다르게 3국 중 가장 소비니즘 점수가 낮는데, 이는 아마도 두 나라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론에서 일본의 극우성향의 메시지를 증폭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일본은 집단 존중감과 집단 동일시 항목에서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한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총 37개 문항을 가지고 Figure 2.1의 순서에 따라 제1주성분들을 구하면 Table 3.2와 같이 [V1], [V2], [V3], [V4]가 생성되는데, 이는 항목별 전체 분산의 44%, 66.5%, 46.2%, 52.3%를 각각 설명한다. Figure 3.2는 4개의 항목별 국가 정체성 변수에 대한 한·중·일 차이를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중국 > 한국 > 일본의 차이를 볼 수 있으나 집단 범주화 정체성 변수 [V2]와 구성적 정체성 변수 [V3]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유의확률 각각 0.806, 0.074).

Table 3.2. National identity variables [V1]–[V4] and national identity composite indeces

국가 정체성 변수	주성분	설명되는 분산
허만의 정체성 변수	$[V1] = 0.197A_1 + 0.254A_2 + 0.247A_3 + 0.260A_4 + 0.282A_5 + 0.203A_6 + 0.276A_7 + 0.260A_8 + 0.218A_9 + 0.192A_{10} + 0.228A_{11} + 0.255A_{12} + 0.268A_{13} + 0.268A_{14} + 0.259A_{15} + 0.245A_{16} + 0.164A_{17}$	44.0%
집단 범주화 정체성 변수	$[V2] = 0.473B_1 + 0.517B_2 + 0.487B_3 + 0.519B_4$	66.5%
구성적 정체성 변수	$[V3] = 0.430C_1 + 0.376C_2 - 0.016C_3 + 0.436C_4 + 0.422C_5 + 0.370C_6 + 0.407C_7$	46.2%
타자인식의 정체성 변수	$[V4] = 0.345D_1 + 0.298D_2 - 0.259D_3 + 0.324D_4 + 0.362D_5 + 0.352D_6 + 0.347D_7 + 0.366D_8 + 0.327D_9$	52.3%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1	$[Nid.1] = 0.584[V1] + 0.557[V2] + 0.564[V3] + 0.170[V4]$	57.8%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2	$[Nid.2] = -0.137[V1] - 0.279[V2] + 0.134[V3] + 0.940[V4]$	25.4%

여기서 $A_1, A_2, \dots, D_8, D_9$ 는 설문지의 문항번호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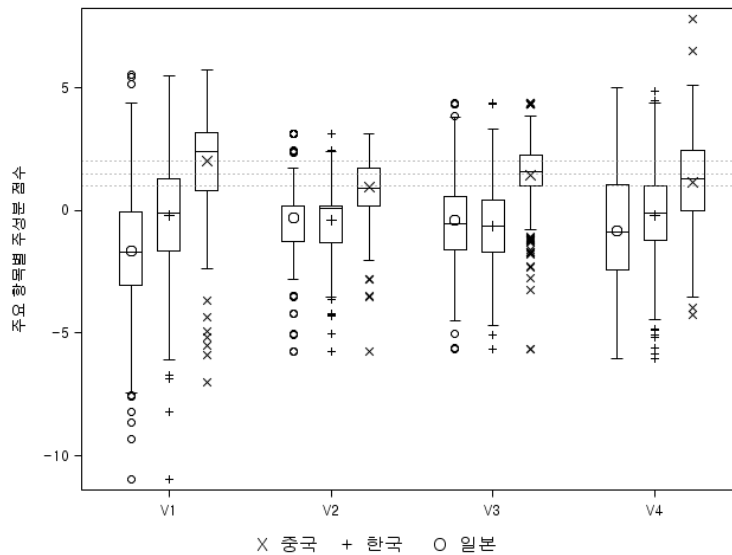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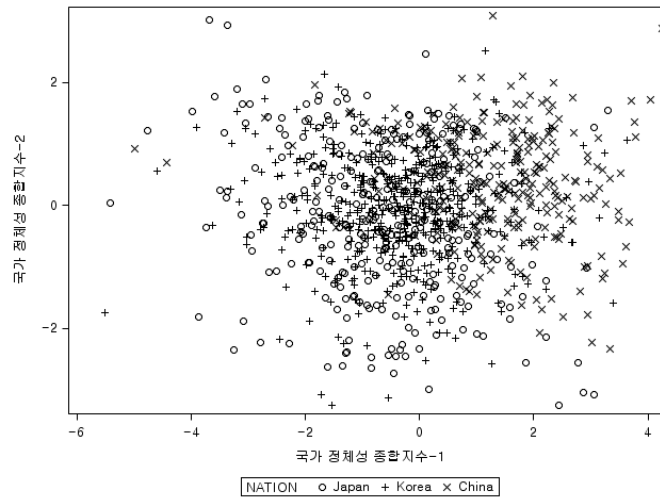
Figure 3.2. Comparison of the national identity variables [V1], [V2], [V3], [V4].

이렇게 생성된 4개의 국가 정체성 변수([V1]–[V4])들의 선형결합 가운데 가장 분산을 많이 설명하는 제1주성분(57.8%)을 구해서, 우리는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1’이라 하고, 두 번째로 분산을 많이 설명하는 제2주성분(25.4%)을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2’라고 하였고, 이 두 개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는 전체 분산의 83.2%를 설명하고 있다 (Table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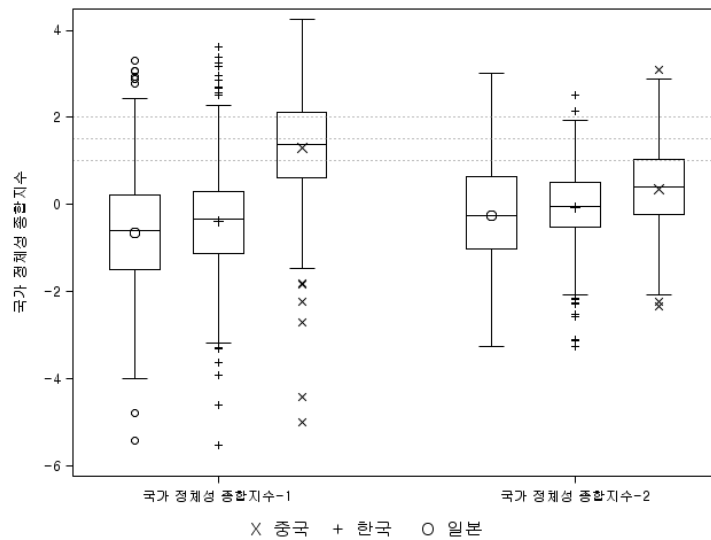
3.2.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 비교

Table 3.2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들의 적재값을 살펴보면,

$$\begin{aligned}
 [Nid.1] &= 0.584 [V1] + 0.557 [V2] + 0.564 [V3] + 0.170 [V4], \\
 [Nid.2] &= -0.137 [V1] - 0.279 [V2] + 0.134 [V3] + 0.940 [V4]
 \end{aligned}
 \tag{3.1}$$



(a) Scatter plot



(b) Boxplot

Figure 3.3. Comparison of national identity composite indeces.

가 되는데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1은 허만의 정체성 변수(V1), 집단 범주화 정체성 변수(V2), 구성적 정체성 변수(V3)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반면,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2는 상대적으로 타자인식의 정체성 변수(V4)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정체성을 규정할 때 인식의 대상이 자아(self)인지, 타자(others)인지를 구분한다면,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1은 넓은 의미에 ‘자아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라고 해석되고,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2는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로 해석된다. Figure 3.3(a)는 두 개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에 대한 3국 설문응답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Figure 3.3(b)는 3국 간 자아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와 타아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의 차이를

Table 4.1. the frequency table for Korea-Japan conflict over past history

E_04	매우 저해가 된다 (1)	다소 저해가 된다 (2)	별로 저해가 되지 않는다 (3)	전혀 저해가 되지 않는다 (4)
한국	389명 (80.37%)	75명 (15.50%)	16명 (6.01%)	4명 (2.22%)
일본	176명 (55.70%)	114명 (36.08%)	19명 (17.59%)	7명 (17.00%)

보여준다. 중국인들은 두 정체성 종합지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되 특히 자아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에서 중국(1.309)은 한국(-0.309)과 일본(-0.658)에 비해 높고(산점도의 경우 오른쪽에 위치), 한국과 일본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다(유의확률 < 0.001).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에서도 중국(0.353) > 한국(-0.061) > 일본(-0.243) 순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유의확률 < 0.001). 따라서, 중국은 자기 나라에 대한 존중감을 비롯한 자아인식의 국가 정체성이 가장 높았고, 이웃 나라를 우호적으로 여기는 타아인식의 국가 정체성도 3국 중 제일 높았다.

4.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와 한·일 갈등

한·중·일 3국은 오랫동안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로서 많은 문화교류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침략과 갈등, 반목이 계속되어 왔다. 그렇다면 한·일 간 갈등의 현안에 대해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다음은 한·일 갈등의 대표 현안인 ‘과거사’에 관한 문항이다.

“과거사(위안부/강제징용)가 한·일 양국 협력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일 관계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차이를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 비교하면, “한·일 과거사가 한·일 협력에 매우 저해가 된다”고 답한 비율이 한국은 80.37%나 되지만 일본은 55.70%였다 (Table 4.1과 Figure 4.1(a)). 이 질문의 반응변수(E_04)에 대한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Nid_1, Nid_2)의 효과를 성별, 나이, 국가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하고 식 (4.1)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F 는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인 지시변수를, I_J 는 일본인이면 1 한국인이면 0인 지시변수를 각각 의미하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widehat{E_{04}} = 1.315(0.035) - 0.126(0.042)F + 0.330(0.043)I_J + 0.137(0.021)Nid.2. \quad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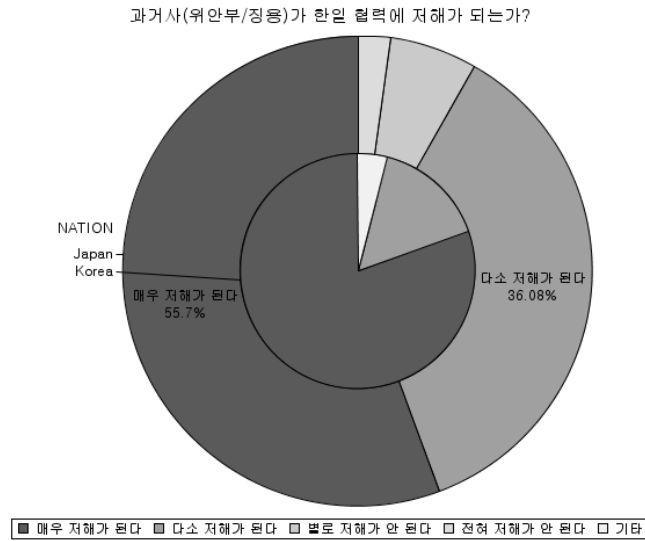
Figure 4.1(b)에서 보듯이 한·일 양국은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가 증가할수록(즉, 이웃나라에 대한 친근한 인식이 높을수록), 한·일 과거사가 양국 협력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인보다는 한국인이, 남성보다 여성이 과거사가 한·일 양국 협력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응답하였다(유의확률 < 0.001). 반면에, 자아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5.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와 한·중·일 3국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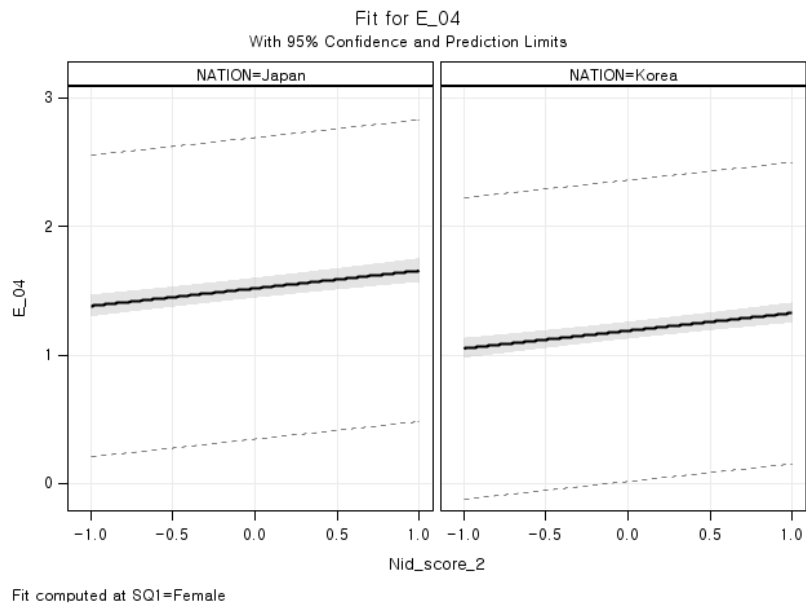
5.1.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의 중주국으로서 2015년 전체 세계 GDP의 22%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이루고 있고, 세계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공동체이다. 이렇게 한·중·일 3국이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문화적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은 실질적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 가운데, 응답자에게

“한반도 정세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가?”



(a) Pie chart



(b) The effect of the national identity composite index-2

Figure 4.1. The Korea-Japan conflict and national identity composite indices.

라는 질문에 (예/아니오)를 답하게 하였는데, Table 5.1과 같이 한국(54.97%)이 일본(47.8%)이나 중국(47.37%)보다 한반도 정세가 동아시아 평화의 위협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항과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와와의 관계를 성별, 나이, 국적을 고려하여 로지스틱 회귀로 얻은 결과, Nid.1, 성별, 나이는

Table 5.1. Is Korean peninsula affairs threatening the peace of East Asia?

	한국	중국	일본
예	271 (54.97%)	144 (47.37%)	152 (47.80%)
아니오	222 (45.03%)	160 (52.63%)	166 (52.20%)
전체	493 (100%)	304 (100%)	31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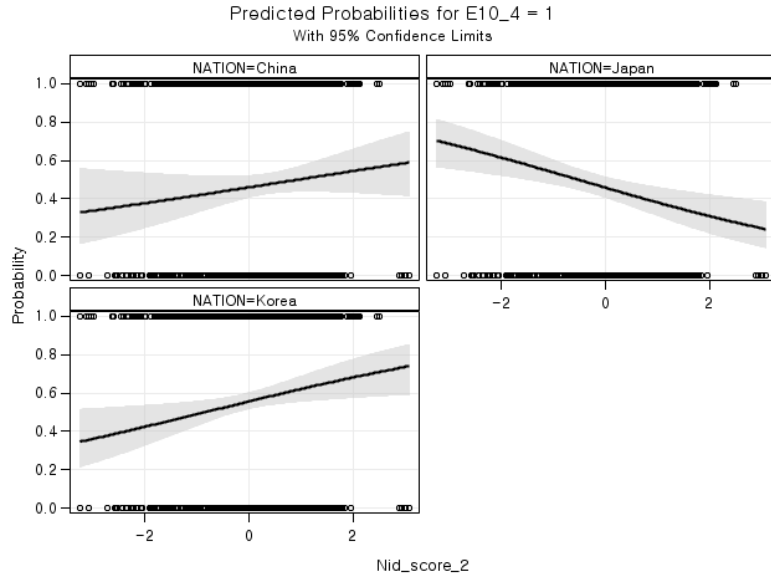


Figure 5.1. Korean peninsula affairs as East Asia conflict and national identity composite indexes.

유의하지 않아서 우리가 얻은 추정식은 식 (5.1)이 되었다. 여기서 π 는 한반도 정세가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할 확률을 의미한다(괄호 안은 표준오차). 여기서 I_J 는 일본인이면 1, 아니면 0, I_C 는 중국인이면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지시변수이다.

$$\ln\left(\frac{\hat{\pi}}{1-\hat{\pi}}\right) = 0.227(0.092) - 0.387(0.155) I_C - 0.395(0.149) I_J + 0.265(0.108) \text{Nid}_2 - 0.096(0.168) I_C \times \text{Nid}_2 - 0.582(0.145) I_J \times \text{Nid}_2. \quad (5.1)$$

이 분석결과, 한반도 정세가 동아시아 평화의 위협요인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중국인과 일본인보다는 한국인이 높았고(유의확률 0.012),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은,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가 높을수록 한반도 정세를 동아시아 평화의 위협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일본인에게는 오히려 그 확률이 감소하였다 (Figure 5.1 참조). 이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북한 핵문제를 일본인보다 민감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를 통한 국제적 긴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일본인은 한반도의 긴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5.2. 한·중의 협력과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

최근에 한·중 협력은 경제분야 뿐 아니라 K-pop 등으로 인한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활발해 지고 있다. 이미 2017년에 한·중 수교는 25주년을 맞이했고 교역량도 33배 늘어나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 되

었고, 한국은 중국의 4대 수출국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한·중 관계에서 미래의 전망을 다음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한·중 양국의 미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질문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고 응답할 확률을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에 대하여 성별, 나이, 국적을 고려해서 로지스틱 회귀로 조사하니, 성별은 유의하지 않아서 식 (5.2)와 같은 추정 회귀식을 얻었다. 여기서 π 는 이 질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고 응답할 확률이다(괄호 안은 표준오차).

$$\begin{aligned} \ln\left(\frac{\hat{\pi}}{1-\hat{\pi}}\right) = & -0.903(0.255) + 0.242(0.220)I_C - 1.458(0.219)I_J + 0.012(0.005)Age \\ & + 0.430(0.099)Nid.1 - 0.317(0.143)I_C \times Nid.1 - 0.232(0.160)I_J \times Nid.1 \\ & + 0.687(0.089)Nid.2. \end{aligned} \quad (5.2)$$

그 결과,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나이가 증가할수록(유의확률 0.01), 그리고 자아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와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가 증가할수록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나라별 기울기는 서로 다르게 나왔다 (Figure 5.2).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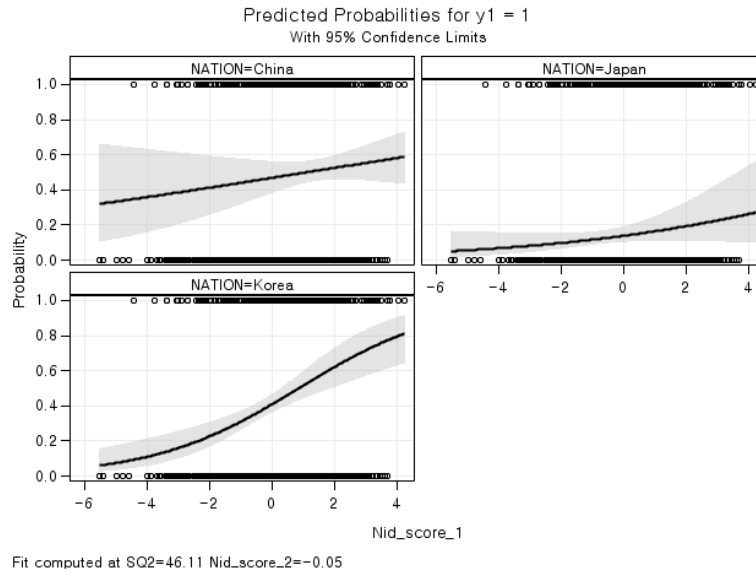
한·중·일은 현재 인구 규모 면에서 세계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세계 GDP의 20%에 달하는 한·중·일 경제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제 구역이다. 이처럼 세 나라가 모두 상생하기 위한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그동안 강대국들의 힘싸움과 정치 및 경제제도나 경제규모의 차이로 인해 실제적 협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해 각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자아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와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로 제시하고 있다. 두 개의 종합지수 모두에서 중국 > 한국 > 일본 순으로 국가 정체성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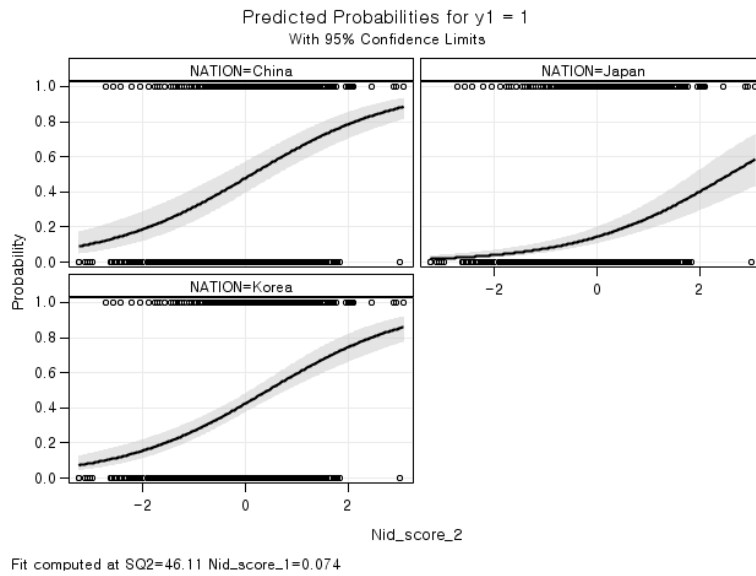
한·중 미래에 대해서는, 자아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나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가 증가할수록 발전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그리고 이웃나라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질수록 한·중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한반도 정세가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한국인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인과 중국인은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가 높을수록 한반도 정세가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일본인은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가 높을수록 한반도 정세를 위협요인으로 인정하는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일본인에게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는 북한에 대한 친근감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한·일 갈등 현안인 과거사(위안부/강제징용)에 대한 설문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한국이 일본보다 더 민감하게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남성보다 여성이 과거사(위안부/강제징용)가 한·일 협력에 저해가 된다고 답하였다. 또한 타자인식의 정체성 종합지수가 높을수록 과거사가 한·일 양국 협력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원한다면 우리가 사용한 회귀분석 외에 순서척도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 언급되지 못한 3국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여러 문항들에 대해서도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의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대체적으로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는 많은 경우에 갈등과



(a) The effect of national identity composite index-1



(b) The effect of national identity composite index-2

Figure 5.2. The future of Korea-China relationship and national identity composite indexes.

협력 항목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나, 자아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는 대부분 3국의 갈등과 협력 현안에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는 Hermann 등 (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국가 정체성과 국가 간 갈등의 관계를 ‘국가에 대한 애착’ 외에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일치되며, 본 논문은 이 부분을 타자인식의 국가 정체성 종합지수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중·일 3국의 갈등과 협력을 국가 정체성이란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이 아직도 지역적/역사적 상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국가 정체성을 이용함으로써 한·중·일 3국 협력의 돌파구를 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록

본 논문에 사용된 항목별 설문문항은 Table A.1–A.4와 같다. 여기서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alpha)는 문항의 신뢰도(reliability)를 나타내며, 연구에 사용된 모든 항목이 0.74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Cortina, 1993).

Table A.1. National identity variable [V1] and questionnaire

항목	설문문항	크론바흐의 알파
집단 존중감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국인)임을 알린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나는 내 자신이 (한국인)답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한국인)들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처럼 느껴진다.	0.841
집단 동일시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관심이 많다. 나는 언제나 (한국인)답게 행동하려고 한다. 누군가 (한국)을 비판하면 나에게 개인적인 모욕처럼 느껴진다.	0.747
본원적 정체성	진정한 (한국인)이 되려면 부모 중 한 분은 (한국인)이어야 한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의 가치관과 관습을 따라야 한다.	0.747
소비니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된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익(승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0.832

Table A.2. National identity variable [V2] and questionnaire

항목	설문문항	크론바흐의 알파
집단 범주화 정체성	나는 외국인보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더 크다. 나는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한국인)들과 함께 하고 싶다. 나는 (한국인)들을 외국 사람들보다 쉽게 믿는다. 나는 외국 사람보다 (한국인)들과 함께 활동하고 싶다.	0.830

Table A.3. National identity variable [V3] and questionnaire

항목	설문문항	크론바흐의 알파
구성적 정체성	(한국)은 동아시아의 리더 역할을 한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주변국이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를 이끌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세계의 귀감이 된다. (한국)의 문화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학문은 세계를 이끌고 있다.	0.764

Table A.4. National identity variable [V4] and questionnaire

항목	설문문항	크론바흐의 알파
타자인식의 정체성	(중국/일본)은 (한국)의 믿을 수 있는 친구다. (중국/일본)은 (한국)의 좋은 경쟁상대(rival)다. (중국/일본)은 (한국)의 적이다. (중국/일본)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 정치/외교에서 (중국/일본)과의 관계는 좋다. 경제(무역/투자) 교류에서 (중국/일본)과의 관계는 좋다. 문화(공연/관광/스포츠) 교류에서 (중국/일본)과의 관계는 좋다. 학술/교육 교류에서 (중국/일본)과의 관계는 좋다. 군사/안보에서 (중국/일본)과의 관계는 좋다.	0.778

References

- Akerlof, G. and Kranton, R. (2008). Identity,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Palgrave Macmillan, London, UK.
- Bénabou, R. and Tirole, J. (2006). Incentives and Prosocial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96**, 1652–1678.
- Bowles, S. (1998). Endogenous Preferences: the Cultural Consequences of Markets and Other Economic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75–111.
- Chi, S. H. (2016). Geopolitics of conflicts and cooperations in Northeast Asia -trends and challenges-,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50**, 295–314.
- Cortina, J. M. (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 examination of theory and applic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98–104.
- Crocker, J. and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0–67.
- Dufwenberg, M. and Güth, W. (2007). Why do you hate me? On the survival of spite, *Economic Letters*, **67**, 147–152.
- Federal Reserve Board (2013). Insights into the financial experiences of older adults: a forum briefing paper,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Washington, DC 20551*.
- Hermann, R., Isernia, P., and Segatti, P. (2009). Attachment to the n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imensions of identity and their relationship to war and peace, *Political Psychology*, **30**, 721–754.
- Huddy, L. and Khatib, N. (2007).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 63–77.
- Jung, S. C. (2014). Asia's paradox? - economic cooperation and security conflict in East Asia, *World Politic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1**, 19–52.
- Kim, B. S. K. and Omizo, M. M. (2005). Asian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values, collective self-esteem, acculturative stress, cognitive flexibility, and general self-efficacy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412–419.
- Kim, T. (2018). The rise of value diplomacy and bloc-ization of values: comparing great and middle powers, *IFANS Focu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2018-31E, 3–4.
- Macrae, C. N. and Bodenhausen, G. V. (2001). Social cognition: categorical person percep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2**, 239–255.
- Meltzoff, A. and Moore, M. (1985). Cognitive foundations and social functions of imitation and intermodal representation in infancy. In J. Mehler and R. Fox (Eds.), *Neonate Cognition: Beyond the Blooming, Buzzing Confusion* (pp. 139–156), Hillsdale, Erlbaum, NJ.
- Park, J. (2017). The effects of collective self-esteem, working hours on job satisfaction :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working environ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7**, 435–452.
- Rosenberg, S. (1997). Multiplicity of selves. In R.D. Ashmore and L. Jussim (Eds.), *Self and Identity* (pp. 23–46), Oxford University Press, NY.
- Sedikides, C. and Brewer, M. (2001).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Psychological Press,

Philadelphia.

- Shayo, M. (2009). A model of social identity with an application to political economy: nation, cla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3**, 147–174.
- Sniderman, P. M., Hagendoorn, L., and Prior, M. (2004). Prediposing factors and situational triggers: Exclusionary reactions to immigrant minor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 35–49.
- Tajfel, H. (1978). The achievement of group differentiation.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Academic Press, London.
- Turner, J. C. and Oakes, P. J. (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 B. Paulus (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NJ
- Wendt, A.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22.

주성분분석으로 추정된 한·중·일 3국의 정체성

박흥선^{a,1} · 한민^b · 양운철^c · 이은지^a

^a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과, ^b우송대학교 심리학과, ^c세종연구소

(2019년 3월 4일 접수, 2019년 3월 28일 수정, 2019년 4월 5일 채택)

요약

한·중·일 3국에 대한 연구는 정치, 경제, 외교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지정학적 관점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분석되어 왔다. 최근에 한·중·일 3국 간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태이지만, 정치, 외교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한·중·일 3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종합지수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이들이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자국에 대한 애착도는 흔히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국가 간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반면에, 이웃 나라에 대해 친근감이 증가할수록 국가 간 갈등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가 간 협력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요용어: 다변량 자료분석, 공분산분석, 로지스틱 회귀

이 논문은 2017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2017S1A5A2A03069083).

¹교신저자: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과.

E-mail: hspark@hufs.ac.kr